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포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회개의 절기 사순절 시작

2월 18일~4월 4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2월 18일(수)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올해의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인 4월 4일까지 계속 된다.

이 기간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근신과 절제, 회개와 경건의 삶을 더욱 힘쓰는 훈련으로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기간이다.

우리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각 교회학교를 통해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배우며 깊이 묵상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게 된다.

성도들 개개인은 이 기간 중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금식을 하기도 하며 기호와 오락을 절제

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좇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고난의 참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는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아 2월을 민족회개의 달로 선포하는 '등은 성도가 개인적인 죄의 회개, 교회의 갱신, 국가적

위기 극복 등의 과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배움을 입었던 것을 상기하면서 가슴에 베로 만든 '리본을 달고 매일 정오에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참회와 근신과 경건을 훈련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98 부활절을 맞이하자.

사순절이란?

사순절(四旬節)이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며 전통적으로는 이 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혹은 '성회 수요일'이라고 부른다.

사순절은 '앵글로 색슨의 '봄'이란 의미의 렌넨(Lenten)에서 왔다. 그리고 '40'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간 금식하신 것, 모세가 서나산에서 40일 간 하나님과 함께 한 것,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기간이 40일이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세기 교회들은 사순절을 회개의 절기로 삼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았다.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이번 주 대학부수련회 개최

16일(월)~18일(수) 교회당서
"21세기 비전대회"에도 참석

교회학교의 겨울 계절학교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 청년부수련회에 이어 이번 주에는 대학부가 수련회를 갖는다.

대학부수련회는 4층 대학부실에서 16일(월) 오전 10시부터 18일(수) 오후 2시까지 2박 3일간 개최된다.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학부수련회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이며 주요 프로그램은 말씀과 나

눔, 찬양, 학년별 모임, 아침 묵상, 결단과 섬김의 시간, 기도회 등이다.

대학부 회원들은 16일(월) 오후엔 영락교회당에서 개최되는 "98년도 지독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연·고대 신입생 초청 21세기 비전대회"에도 참석하게 된다.

다음 주 계절학교는 개최하는 부서는 금주에 기도회 등 모임을 갖고 효과적인 진행을 위한 최종점검을 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계절학교일정은 아래와 같다.

부서	주제	실시일	장소	강사
유치부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요	23일(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별관 유치부실	이종윤 목사, 신미숙 전도사
유년부	우리는 거듭난 어린이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3층 유년부실	이종윤 목사, 이상진 목사
초등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23일(월) ~ 24일(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2층 초등부실	이종윤 목사, 이상득 목사
중등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26일(목) 오전 10시 ~ 27일(금) 오후 2시, 1박 2일간	3층 소망부실	이종윤 목사, 민영수 목사, 박귀환 목사
고등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23일(월) 오전 9시 ~ 25일(수) 오후 5시, 2박 3일간	한국중앙기도원	이종윤 목사, 이순환 목사, 김정현 목사
대학부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16일(월) 오전 10시 ~ 18일(수) 오후 2시 2박 3일간	4층 대학부실	이종윤 목사, 박귀환 목사
사랑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별관 사랑부실	이종윤 목사, 김성숙 전도사

이사야

여호와와 그의 날

2장 12 · 22절

일년 365일 어느 한 날도 여호와와 그의 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호와와 그의 날' (12절)이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1.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본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사람, 바산의 상수리 나무 같은 사람, 높은 산과 솟아 오른 작은 산과 같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많은 사람의 흥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것 같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고 또 교만의 성을 쌓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들을 여호와와 그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성공하는 것이나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 교만으로 이끌고 간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교만'과 '높은 이'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 반복되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우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발전이 없게 됩니다(렐 13:9, 습 2:10).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그의 날에 교만한 나라를 겸손케 하실 것이고 교만한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교만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2. 우상을 섬기는 사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아하고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

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

될 수 없습니다.

3. 인간을 의지하는 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존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사 2:12-22)

이중윤 목사



기를 섬기고, 자기 지식을 섬기고 자기의 물질을 섬깁니다. 성경은 또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골 3:5).

바울 사도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고전 16:22)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머리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 더 귀히 여기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여호와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잎의 이슬과 같이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습 2:11, 렐 10:11).

여호와와 그의 날에 기대했던 우상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 비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두더쥐와 박쥐의 동굴에 집어던지고 우상을 섬기던 이들이 수치스러워 모두 그곳으로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혼드시면 동굴도 피난처가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렐 17:5).

인간의 지식은 사실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확실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킬 것은 하나님의 명령뿐입니다(전 12:12-13).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의지하려 하지만 그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약 4:14)같은 세상에서 너무 근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발자국 물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그리고 자고한 자가 심판을 당할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자가 망할 것이며 우상은 파괴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가정부에 가는 기대

세살 버릇 여든까지, 신혼 초 버릇 파뿌리되기까지

‘우리가정은 지금 은혜 충만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재미있고 행복한데도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 ‘청년부?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년부? ... 우리 부부는 어디에 소속되어 말씀공부와 교제를 해야 하는 걸까?’

결혼한 지 이제 10개월. 아직 신혼인 우리 부부는 많은 것을 자문해 보게 됐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피어나는가에 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려웠다. 세상의 모든 가정과 차별화된 무언가가 없이 그저 하루하루 재미만 있게(?) 보낼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 줄 기회가 간절히 필요했다.

이러한 때에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새가정부가 개설된다는 소식을 알급한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남편과 아내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성경공부를 통한 명쾌한 답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은근 · 최인정 부부(5교구, 안양다락방)

부부간에 부대끼며 발생하기 쉬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상한 감정들을 치료해 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결혼 생활에 선배가 되시는 분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 그리고 다른 가정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의 가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길 원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신혼 초기에 하나님 제일주의의 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은 우리 긴 인생여정에 있어 중요함을 다시 말할 필요 없으리라.

토요일 오후 7시, 새가정을 이룬 우리 또래의 부부들과 또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연인들(예비부부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을 향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사순절의 묵상

역경의 유익함에 대하여

때로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역경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세상 것들을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선한 의도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도 슬픈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멸시를 받거나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내적 증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에 처할 지라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적인 위로를 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거나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유혹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는 더욱 더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고통으로 슬퍼하며 탄식하다가 그 불행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이제 인생살의 피곤함을 느끼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안정과 충만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

◆다락방 소개 - 제 3교구 대치4·5다락방

“새 예배당 지으면 우리가 가장 가까워서 섬기게 됩니다”



지역장으로 수고하시는 양태영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2월 13일, 대치 4·5다락방 가족들이 연합하여 축하잔치 겸 다락방 도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년에 파견 지역장으로 수고하셨던 김명숙 권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대치 4다락방과 대치 5다락방은 각각 다섯 가정씩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한 다락방이었었는데 배가 성장하여 지금은 두 다락방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두 다락방 식구들은 참된 이웃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또 교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모습에 서로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다락방장감으로 손색이 없으니 만큼 모두가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올해는 새 예배당 건축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면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워서 섬기게 될 우리 다락방이 중심 교구, 중심 다락방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그 날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 다락방 일꾼들을 소개하자면 치역장 양태영 권사, 부지역장 정현숙 집사, 다락방장 최정옥 집사(대치 4) · 김수원 집사(대치 5), 권찰 이은희 집사(대치 4) · 나금주 집사(대치 4) · 김두희 집사(대치 5)입니다.

- 글: 주희인 집사 -

2월은 민족회개의 달

가슴에 베 리본 달기 · 정오의 회개 기도 계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2월을 “민족 회개의 달”로 선포하고 지난 주일 저녁 우리교회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 14개 교회에서 일제히 민족회개운동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선포와 민족회개운동의 취지문 낭독, 회개기도의 순서가 진행됐다.

아울러 ‘정오의 회개 기도’, ‘가슴에 베 리본 착용’, ‘정직 · 절제 · 사랑 실천’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 온 성도의 참여를 촉구했다.

실천사항

■ “우리는 오늘 IMF 사태라는 국란을 맞아, 이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책책으로 겸손히 받아들이며 참회를 통해 국가의 회생을 기하고자 민족회개의 달에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① 우리는 오늘의 비통한 현실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믿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상을 섬기며 악을 좇던 불신, 불충, 불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은 매일 정오에 회개기도를 드린다.

② 우리는 이같은 회개운동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1998년 2월 한 달을

‘민족회개의 달’로 정하고 각자 회개의 표현으로 가슴에 ‘베 리본’을 패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한다.

③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그리고 건전한 국민으로서 정직, 절제, 사랑을 실천할 때 민족의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국민정신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생활개혁에 힘쓴다.

2월 학습 · 세례식

18일(수) I · II부 예배 시

2월 학습 · 세례식이 18일(수) I · 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 · 세례자 중 교육에 미참한 성도를 위해 16일(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며 문답은 17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실시한다.

학습 · 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 ·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문의는 새가족부.

동정

◆이종운 목사는 15일(주일) 오후 7시 새문안교회당에서 개최하는 “전국 남선교회연합회 경건 · 절제대회”에서 설교, 16일(월) 영락교회당에서 개최되는 “98년도 기독교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연 · 고대신입생 초청 21세기 비전대회”에서 강연.

◆이관모 집사(2교구)는 14일(토) 평촌에 ‘한양손맛만찬’ 개업.

◆오늘 점심식사는 조용식 집사, 유명석 권사 가정에서 제공.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

올해의 결연

107개 교회로 마감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2월 14일 올해의 후원자 접수를 마감하기로 하고 107개 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100교회운동본부에서는 2월 중에 결연이 확정된 후원자도 1월분 후원금부터 내줄 것과 모든 후원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지원교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간에 신청한 후원자 중에서 지원교회와의 결연에 변동사항이 생긴 것은 아래와 같다. ▼ 지원현황 (정정, 추가, 신규)

번호	교회명	교역자(직분)	후원자
103	화평장애인교회	김구열(목)	김종자
104	신덕교회	유재운(전)	에스더 6전도회
105	화산산성교회	윤일권(전)	최금자, 송인권
106	창대교회	신동춘(목)	전수자 · 마리아1
107	성산교회	정태호(전)	이상윤 · 원복순

순례자 컬럼

겨자씨와 누룩같이

예수님은 천국의 외형적 확장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설명하셨다. 겨자씨처럼 처음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나중은 위대하고 세상을 지배할 것임을 가르친다. 천국은 그 나라의 왕되신 예수께서 비천한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서서히 확장되어 마침내 온 세상을 뒤덮었다. 하루의 짧은 순간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지금처럼 작은 것 하나가 위대한 결과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작은 씨앗이 무성한 나무가 되듯 생명을 가진 복음은 반드시 성장한다.

예수님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질적 성장을 말씀하셨다. 한덩이의 작은 누룩이 항아리 속의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 주님의 복음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위해
2.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3. 농어촌 자매교회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